

IEA 시민의식 국제비교연구 참여를 통한 아시아 청소년들의 시민의식 비교 연구 : ARM 예비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조영하** · 김태준***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가 주관한 2009년도 시민교육 국제비교조사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여 경험하고, 얻은 자료들을 활용하여 한국 청소년들의 시민의식수준을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면밀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이에, 국제비교연구가 갖는 문화적 특수성과 상이성을 고려하여, 이 연구는 당 조사에 참여한 아시아 문화권 국가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시민의식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국제비교조사에 참여한 한국, 홍콩,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의 대표 연구진들이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의 공통 가이드라인 하에 공동으로 개발한 아시아지역 설문도구를 활용하여 2008년 수행된 예비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아시아 5개 국가 간 청소년들의 시민의식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아울러, 아시아지역 설문도구의 기술적 적합성도 함께 검정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아시아 청소년 시민의식의 객관적 비교결과는 2010년 12월 이후에 공개될 세계 38개 참여국들에 대한 방대한 양의 본조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그 활용가치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국제교육성취도협의회, 2009년도 시민교육 국제비교조사,
아시아지역 설문도구, 청소년의 시민의식 및 준비도, 아시아국가 비교

* 이 논문은 2007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323-2007-1-B00045).

** 경희대학교

*** 한국교육개발원

I. 서 론

지금 한국 사회는 저출산·고령화의 급진전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청소년의 사회적 역할 및 책무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김기현·김지연, 2007). 한편 취업난의 심화, 가족구조의 다양화, 소득의 양극화, 다문화 가정의 증가 등 사회 환경의 변화는 그동안 학교교육이 견지했던 입시위주 교육, 주입식 교육, 학력만능주의 교육을 지양하고,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성숙한 삶을 설계할 줄 아는 미래지향적 청소년의 육성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 안팎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나 학습의 중요성, 혹은 이를 육성하기 위한 비형식적인 교육과정 등은 그동안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행정이 등 다양한 교육주체들에게서 우선순위로 볼 때 뒤로 밀려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아마도 교육에 대한 주된 관심이 개인의 지식과 기술의 습득, 학력의 신장, 경쟁력 증진에 있었지, 사회적 협동, 신뢰, 윤리, 도덕, 시민의식, 사회적 자본의 육성에는 소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학생들의 무분별한 시위참여, 인터넷 악성 댓글, 학교폭력 등 청소년과 관련한 심각한 사회문제나 그릇된 태도는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왔던 이 같은 부분들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을지 모른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국, 핀란드 등 선진국들은 청소년의 시민의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수준에서 청소년 실태 분석에 주력해오고 있다(Helve & Bynner, 2008). 특히, 영국은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시민의식과 사회적 자본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연구를 최근까지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 예컨대 성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왔던 시민의식과 사회적 자본 측정에서 청소년들이 결여되어 왔다는 판단 아래, 2003년부터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1단계 가계조사를 실시하였고, 2단계에서는 ‘국가통계옴니버스조사(National Statistics Omnibus Survey)’를 국가통계청과 교육부의 연계 하에 추진하였다. 2단계 조사는 청소년과 관련한 사회적 개념과 범주들을 탐색하여 측정지표화하고 이들 지표와 영국 청소년들이 처한 상황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고, 아울러 청소년집단과 다양한 연령집단들을 객관적 지표 하에서 비교·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Deviren & Babb, 2005).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래 국가전략으로서 청소년정책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청소년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 청소년의 시민의식 강화, 청소년 친화적 사회 환경 구

축 등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과 인성함양, 역량 강화를 목표로 인적자본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다양한 청소년정책들이 정부차원에서 제시되었다(한나라당, 2007). 또한 그동안 지식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태도, 창의성, 사회성, 예술적 감수성 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의 개편이나 미래사회 청소년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려는 교육정책적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2007; 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그러나 이러한 청소년정책들이 그저 논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거나 현장에 실효성 있게 전달되지 않은 것은 처음부터 학력이나 경쟁력 증진 정책보다 우선순위에 밀려 있거나, 청소년 시민의식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나, 청소년정책의 방향이나 초점을 어느 곳에 맞춰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아울러 이를 위한 기초자료나 근거도 매우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상기한 문제점들에 공감하며, 이 연구는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이하 IEA)가 주관하는 시민교육 국제비교연구(International Civic & Citizenship Education Study: 이하 ICCS 2009)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여 경험하고, 얻은 자료들을 활용하여 한국 청소년들의 시민의식수준과 위상을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면밀하게 조사하고자 한다. 이에, 국제비교연구가 갖는 문화적 특수성과 상이성을 고려하여, 이 연구는 ICCS 2009에 참여한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동질한 문화적 배경 하에서 청소년들의 시민의식을 비교·분석하였다.

II. ICCS 2009의 구조적 배경과 본 연구의 방법

ICCS 2009는 총 4년의 계획 하에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되었고, 한국은 2007년 8월에 국가분담금을 납부하고 공식적으로 참여해왔다. [그림 1]은 ICCS 2009의 연도별 흐름을 단계별로 도식화하여 설명한 것이다.

1단계 (2007년~2008년)	2단계 (2008년~2009년)	3단계 (2009년~2010년)
ICCS 조사 설계 및 지역별 예비조사 실시	ICCS 본조사 실시 및 국가별 자료 수합·검증	ICCS 본조사 결과의 분석
· ICCS 평가틀 수정·보완, 설문도구 문항개발 및 검토 · 아시아지역 설문도구개발 및 예비조사 실시	· ICCS 본조사 실시 - 표집 및 문항 수정, 번역 및 검증 - 본조사 시행 및 질 관리 - 조사자료 코딩 및 입력 - 수합된 자료 IEA 본부 제출 및 검증	· 본조사 결과 종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국제 결과 발표 및 국제 연구 결과 보고서 작성 · 문항공개 및 분석자료집 작성 · 국가 심층 보고서 작성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림 1] ICCS 2009의 단계별 흐름

[그림 1]과 같이, ICCS 2009의 본조사는 2009년에 수행되었는데, 2007년부터 1년간은 본조사를 위한 평가틀과 설문도구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본조사의 일환으로 지역별 설문도구의 개발도 함께 이루어졌다.

IEA가 1999년에 실시했던 제 2차 시민교육 국제비교연구(Civic Education Study, 일명 CIVED)는 서구사회의 맥락에 지나치게 의존하였으나, ICCS 2009는 지역(Regions) 간 존재하는 사회·문화적 차별성을 간과하지 않고, 이를 의도적으로 연구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유럽지역, 라틴지역, 아시아지역의 고유한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세 개의 지역설문도구가 개발되었다. 아시아지역의 참여국으로서 본 연구자들은 아시아지역 설문도구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고, 2008년에는 아시아지역에서 참여한 5개 국가(한국, 홍콩,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지역설문 예비조사도 실시되었다. 세 개의 지역설문도구들은 예비조사를 거쳐 2009년의 본조사 설문도구의 하위조사영역으로 최종 구성되었다¹⁾.

ICCS 2009에 참여한 38개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2009년 본조사 이후, 수합된 자료는 각 참여국의 대표 연구진들이 IEA에서 제시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코딩을 하여 IEA본부에 제출하였고, 본부차원의 자료검증은 이미 완료된 상태이다. IEA

1) 아시아지역 설문도구는 본조사에서 총 8개의 개념구성 하에 49개 하위문항으로 최종 구성되어 2009년 5월에서 해당 국가들에서 실시되었다.

는 오는 2010년 6월 말에 청소년 시민의식 및 시민교육에 대한 국제비교결과를 개괄적 수준에서 발표(First Finding Report)할 예정이고, 2010년 12월 이후에는 세 개의 지역설문도구를 포함한 38개 참여국들의 자료 전체가 공개될 전망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연구는 2008년도 예비조사에서 수합된 아시아지역 5개 참여국가에 대한 자료를 기초로 아시아 청소년들의 시민의식 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공개될 38개 참여국 전체에 대한 방대한 양의 본조사 자료의 체계적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 아시아지역 설문도구(Asian Regional Module)

아시아지역 설문도구는 개념범주(Dimension), 개념구성(Construct), 문항(item) 간 위계적 구조에 기초하여 설계되었고, 아시아참여국의 연구진들은 문헌 및 자료분석을 통해 자국의 역사적, 전통적, 규범적, 문화적 요소들을 식별하여 공통의 동양적 요소들을 추출하여 아시아지역 설문도구의 개발과정에 반영하였다. 이후, 연구진들은 이메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초안에 대한 수정·보완작업을 계속하였고, 최종안은 ICCS 2009 국가연구조정관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확정되었다. 아시아지역 설문도구는 다른 지역설문도구들과 함께 2009년 본조사 설문도구의 문화적 편향성을 전체적으로 통제하면서 동시에 문화적 다양성 간 균형점을 유지하고, 나아가 국제비교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장치로서 기능적 의미를 가진다.

아시아지역 설문도구는 아시아문화와 전통을 내포하는 총 18개의 개념구성(Construct)을 포함하며 각 개념구성은 3개 이상의 4점 척도 하위문항들(Item)로 구성되어, 결국 18개 개념구성 하의 총 97개의 하위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표 1>에서 보듯이, 아시아지역 설문도구의 구조들은 네 개의 시민적 개념범주들(시민사회와 체계, 시민원리, 시민참여, 시민정체성)과 두 개의 개념준거(가치신념, 태도)의 매트릭스로 짜여, 총 일곱 개의 개념범주(시민사회와 체계에 대한 가치신념, 시민사회와 체계에 대한 태도, 시민원리에 대한 가치신념, 시민원리에 대한 태도, 시민참여에 대한 태도²⁾, 시민정체성에 대한 가치신념, 시민정체성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고 있다.

2) 시민참여에 대한 가치신념 범주를 위한 하위 문항개발에는 합의에 이루지 못하였다.

<표 1> 아시아지역 설문도구의 구조들

	시민사회와 체계	시민원리	시민참여	시민정체성
가치 신념	- 구성1: 정부에 대한 인식 - 구성2: 권위에 대한 복종	- 구성 17: 연줄과 공공행정 - 구성 15: 전체를 위한 개인 희생 - 구성 18: 타인배려	-	- 구성 13: 아시아 정체성 - 구성 14: 바람직한 시민상 - 구성 16: 사회화합 대 체면
태도	- 구성 5: 환경보호	- 구성 6: 어른공경 - 구성 7: 빈부의 차 - 구성 8: 비민주적 행위의 인정 - 구성 9: 자국 법제 에 대한 신뢰 - 구성 10: 범법자의 권리	- 구성 11: 부정부패 - 구성 12: 정치인의 필요 숙성	- 구성 3: 아시아 국가들간 관계 - 구성 4: 자국의 전통문화

종합하면, 아시아지역 설문도구는 7개 개념범주(Dimension) 아래 설계된 18개 개념 구성(Construct)의 97개 하위문항들(Item)로 구성되며, 문항들은 공통적으로 아시아 민주주의와 관련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2. 자료 수집

아시아지역 설문도구를 통한 예비조사 자료 수집은 홍콩, 인도네시아, 한국, 대만, 태국의 연구진들의 주도 하에 직접 실시되었다. IEA는 평균 13.8세의 학생을 설문대상으로 엄격히 한정하였고, 아시아지역 예비조사 참여국들은 자국의 학제상황을 고려하여 대략 만 14세 전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집을 진행하였다. 표집과정은 IEA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국가의 연구조정관들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다.

<표 2>와 같이, 각 국가에서 13.7~14.2세 연령분포의 중학생 총 1,092명이 표집되었고, 대만의 경우 남녀학생 간 비율이 상대적으로 불균형적이었다.

<표 2> 설문대상의 표집결과

국가	학생 수	평균 연령	여학생(%)	남학생(%)
한국	237	14.2	49	51
대만	290	13.8	36	64
인도네시아	197	13.7	56	44
대국	196	13.7	53	47
홍콩	172	13.7	52	48
전체	1,092	13.8	48	52

3. 연구 설계와 분석

이 연구는 아시아 청소년들의 시민적 역할에 대한 인식과 수준을 파악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방법과 과정을 구조화하였다.

먼저 설문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통해 분설결과의 객관성을 보장하려면, 아시아지역 설문도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설문도구의 기술적 적합성(Technical Adequacy)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지역 설문도구는 이론적 가설에 의해 연역적으로 설계되었다. 다시 말해, 아시아 5개 참여국 연구진들은 동양적 시민의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인지, 개념, 태도의 관점에서 가설적 가정을 먼저 설정하였고, 그 가정을 근거로 하여 문항들을 개발하였다. 그러므로, 아시아지역 설문도구는 일곱 개의 범주를 “이론적으로” 추출하여 개념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아시아지역 설문도구의 이론적 의존도가 높으므로, 결과의 분석에 앞서 이의 기술적 적합성을 가늠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기술적 적합성은 SPSS 15.0을 활용한 타당도와 신뢰도 검사를 토대로 분석되었다. <표 1>에서와 같이, 아시아지역 설문도구는 구조적으로 일곱 개의 개념범주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가설적 이론의 검정을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설문도구의 이론적(Theoretical), 실제적(Practical) 부합 정도를 측정하였다. 요인 수에 이론적 배경을 강하게 구성한 설문도구에 대한 타당도 검사에는 확인적 요인분석이 적합하다(성태제, 2007). 따라서 확인적 요인분석은 7개의 추출요인을 염두에 두고 직교회전방식에 의

한 주성분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아울러, 문항내적일관성신뢰도 검사를 통해 구성 문항들 간 일관성을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기술적 적합성 검사를 통하여 분석에 적합한 범위를 구조화한 뒤, 아시아 청소년들의 시민의식의 차이를 일곱 개 개념범주별로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통하여 국가집단 차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아시아 청소년들의 시민의식 수준과 차이를 정리하고, 후속 연구를 위하여 제언하였다.

4. 개념 및 용어의 정리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시민성 및 시민의식과 관련된 개념과 용어들이 사용되므로, 논문의 가독성 제고를 위하여 이들에 대한 개념정의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먼저, 아시아지역 설문도구의 개념적 기반이 되는 일곱 개의 범주는 아래와 같은 맥락에서 정의된다(IEA, 2007).

시민사회와 체제란 시민들이 그들의 사회와 맺고 있는 시민계약과 사회 자체가 수행하는 기능을 지탱하는 형식적, 비형식적 메커니즘 및 조직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시민, 국가기구, 시민기구의 세 가지 하위영역을 포함한다.

시민원리는 시민사회가 공유하는 윤리적 기반을 의미하며, 시민원리의 지지, 보호, 고양을 시민적 책임으로 보고, 개인과 집단의 공민적 참여를 유도하는 동기요인으로 간주한다. 시민원리는 평등, 자유, 사회통합의 세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시민참여는 사회공동체 안에서 개인 활동의 표현으로서 어떤 수준의 공동체에서도, 그리고 어떤 공동체적 맥락에서도 가능하다. 참여의 수준은 단순히 인식하는 단계에서부터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직접 참여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시민참여도 세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며, 의사결정, 영향력 행사, 공동체 참여가 그것이다.

시민정체성은 시민으로서 개인의 역할과 역할지각을 의미한다. 시민 개인은 그들이 가족, 동료, 공동체 및 지역·국가·전체사회의 집단들과 맺는 관계에 의해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다. 따라서 시민정체성은 일련의 개인적 영향력 및 시민단체들과 연관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 시민이 단편적인 시민정체성보다는 다양하고 유기적 연계의 정체성을 갖도록 만든다. 시민정체성은 시민의 자아상과 시민 유대감의 두 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한편, 가치신념은 개념, 제도, 사람, 사상의 가치에 관한 신념이다. 가치신념은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깊어져 보다 넓고 근본적인 신념을 대표하게 되므로 태도와는 다르다. 가치신념은 개인의 갈등해결에 영향을 주고, 어떻게 자신과 타인을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기본적 태도의 형성을 돕는다. 가치체계는 개인이 받아들이는 가치 신념의 집합이고, 가치체계는 다시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태도는 사상, 사람, 사물, 사건, 상황, 관계 등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의 상태를 말한다. 가치신념과는 대조적으로 태도는 특성상 개념적 범위가 보다 좁고,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가치신념만큼 뿌리 깊지 않다. 또한 개인이 자기 모순적 태도를 숨기고 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표 3〉은 일곱 개 범주에 구성되어 있는 18개 개념구성(Construct)의 정의이다.

〈표 3〉 18개 개념구성의 정의(〈표 1〉 참조)

구성	주제	내용
1	정부에 대한 인식	정부 영향의 다양한 양상들
2	권위에 대한 복종	어른, 고위직, 교사, 부모에 대한 학생들의 복종
3	아시아국가들 간 관계	아시아국가들 간 관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4	자국의 전통문화	자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지지 정도
5	환경보호	환경보호에 대한 학생들의 지지 정도
6	어른공경	어른공경에 대한 학생들의 지지적 태도
7	빈부의 차	부자와 빈자 간 차이에 대한 학생들의 견해
8	비민주적 행위의 인정	자국 사회의 비민주적 행위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
9	자국 법제에 대한 신뢰	자국 법제시스템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수준
10	범법자의 권리	범법자의 권리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
11	부정부패	부패에 대한 학생들의 허용 정도
12	정치인의 필요 속성	정치인의 필요 속성과 도덕적 행동에 대한 학생들의 견해
13	아시아 정체성	아시아 정체성에 대한 학생들의 느낌 혹은 동의 정도
14	바람직한 시민상	바람직한 시민의식에 대한 학생들의 가치신념
15	전체를 위한 개인 희생	공공선을 위한 개인 권리의 희생에 대한 학생들의 견해
16	사회화합 대 체면	사회화합과 체면에 대한 학생들의 견해
17	연줄과 공공행정	공직에 진출하기 위한 연줄의 중요성에 대한 학생들의 견해
18	타인 배려	타인에 대한 배려에 관한 학생들의 견해

III. 분석 결과

1. 기술적 적합성

아시아 청소년들은 아시아지역 설문도구의 이론적 의도대로 주어진 문항들을 인지하였는가? 아시아지역 설문도구는 일곱 개의 개념범주에 18개의 하위 개념구성을 두었으므로,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요인분석에서는 다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44 이상이면 해당 요인과의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Comrey, 1973). 그 결과, 총 97개 문항들 중 46개의 문항이 일곱 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추출된 일곱 개 요인들은 전체 분산의 47.483%를 설명하였다.

<표 4> 요인분석결과

개념구성번호-하위문항번호-내용	요인						
	1	2	3	4	5	6	7
17f 공무원이 정부 일을 적합하지 않더라도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698						
17b 우리와 직접적 연고가 있는 후보자가 선출되어야만 우리를 진정으로 위할 것이다	.698						
17c 만일 어떤 후보자가 나의 친구 혹은 친인척이라면 최적의 후보자가 아니라도 뽑아주어야 한다	.677						
17d 공무원 채용시 가족이나 친인척의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676						
17a 선거에서 우리는 지역연구 또는 고향출신 후보자에게 투표해주어야 한다	.666						
16e 공무원은 체면을 세우기 위하여 자신의 잘못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622						
11e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	.615						
11f 공무원이 사익을 위해 소속 기관의 재원을 사용해도 괜찮다	.605						
11g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것은 어른들의 일임으로 나오는 상관없다	.492						
16a 사회화합을 위해서 우리는 이웃의 그릇된 행동도 참아야 한다	.486						

개념구성번호-하위문항번호-내용	요인						
	1	2	3	4	5	6	7
18a 우리는 타인보다 가족이나 친지의 요구나 필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84						
8d 정부가 보다 수월하기 일할 수 있다면 정부의 비민주적 행위는 용인될 수 있다	.454						
4f 나는 우리전통문화를 보존하는데 책임을 통감한다		.650					
4a 나는 우리전통문화에 대한 배움의 기회를 더 많이 갖길 원한다		.633					
4e 우리나라 전통문화가 우리문화유산을 대표하므로 전통문화의 모든 부분이 보존되어야 한다		.613					
4d 우리나라 문화가 타국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다 독특한 문화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		.581					
16b 화합을 유지하기 위해 학급동료들과 서로 경쟁하면 안된다		.581					
1c 사람들의 종교나 영적 삶을 고취시키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549					
6b 청년들은 노인들을 부양하여 어른에 대한 감사를 표해야 한다		.532					
14c 도덕적 인간만이 바람직한 시민이 될 수 있다		.503					
13d 나는 아시아인인 것이 자랑스럽다			.756				
13f 나는 아시아지역의 전반적인 민주주의발전이 자랑스럽다			.732				
13c 나는 아시아지역의 전반적인 경제발전이 자랑스럽다			.721				
13e 나는 아시아문화전통이 자랑스럽다			.701				
13g 나는 아시아지역의 전반적인 인권신장이 자랑스럽다			.618				
13a 나는 스스로를 아시아의 시민이라고 생각한다			.588				
13b 나는 스스로를 세계 시민이라고 생각한다			.452				
5e 환경개선은 인간이 자연을 통제하기보다 자연과 조화를 이룰 때 잘 이루어질 수 있다				.624			
1e 정부의 권위가 강할수록 이를 통제하기 어렵다				.581			
17e 공무원 채용시 가족이나 친지에게 특혜를 준다면 담당 공무원은 사임해야 한다				.565			
13i 서양 국가들은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배울 것이 많다				.555			

개념구성번호-하위문항번호-내용	요인						
	1	2	3	4	5	6	7
14d 바람직한 시민이 되려면 지식보다는 도덕성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520			
5d 산업체들은 이윤 저하에도 불구하고 환경보호를 위하여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여야 한다				.497			
2b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고위직의 말을 따라야 한다					.744		
2a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어른의 말씀에 따라야 한다					.729		
2c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야 한다					.712		
2d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항상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675		
12e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들의 도덕적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						.739	
12d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들의 법 준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						.665	
12f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이 범법 혹은 비도덕적 행위를 한다면, 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57	
14a 법을 준수하는 자가 바람직한 시민이다						.472	
14f 바람직한 시민이 되려면 정신적 성숙이 중요하다						.456	
7c 부자들은 능력과는 상관없이 가족연줄을 이용해서 고소득직에 종사할 수 있다							.656
9a 법은 돈과 권위를 가진 자의 편이다							.625
7f 정부 정책은 부자들의 편이다							.613
9c 정치인·정부는 종종 사법부의 결정에 간섭한다							.538

〈표 5〉는 요인분석을 통해 묶인 일곱 개의 요인과 하위 문항들을 나타낸다. [표 1]의 이론적 구조들과 비교하면 아시아지역 설문도구는 이론적 가설들을 부분적으로만 만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론적으로 설정된 18개의 개념구성 중, 요인분석을 통해 이론적 가설을 만족시킨 것은 9개였다.

〈표 5〉 이론적 가설과 실제 간 부합 정도

요인	개념 범주	개념구성 번호	
		이론적 가설	요인분석에 의한 실제
1	시민사회와 체제에 대한 가치신념	구성 1, 2	구성 2
2	시민사회와 체제에 대한 태도	구성 5	구성 5
3	시민원리에 대한 가치신념	구성 15, 17, 18	구성 17, 18
4	시민원리에 대한 태도	구성 6, 7, 8, 9, 10	구성 7, 9
5	시민참여에 대한 태도	구성 11, 12	구성 12
6	시민정체성에 대한 가치신념	구성 13, 14, 16	구성 13
7	시민정체성에 대한 태도	구성 3, 4	구성 4

한편, 문항내적일관성신뢰도 검사 결과, 일곱 개 요인 하에 추출된 46개 문항들 중 〈표 5〉와 같이 이론과 실체가 부합한 총 30개 문항들의 Cronbach α 는 .70으로서 구성문항들 간 일관성은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각 요인 내 구성문항들의 Cronbach α 는 .81(요인 1), .45(요인 2), .78(요인 3), .45(요인 4), .65(요인 5), .82(요인 6), .71(요인 7)로서 요인 2와 3의 경우 다소 낮은 수치의 문항간 일관성을 보였다. 그러나 표집대상이 성인이 아닌 청소년일 경우, 일반적으로 다소 낮은 Cronbach α 값도 허용할 수 있다(McMillan & Schmacher, 2001)는 점에서 본 연구의 문항들 간 일관성은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2. 아시아 청소년들의 시민의식에 대한 국가집단 간 비교

아시아 청소년들의 시민의식의 국가집단 간 비교분석에 앞서, 이 연구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아시아지역 설문도구가 지닌 특정 목적에 관한 추론의 정당화 가능성을 가늠하고자 이 도구의 이론적 가설을 검증해보았다. 그 결과, 이론적 가설의 실제 부합도는 부분적인 것으로 나타나, 설문도구로부터 도출된 결과의 분석적 활용이 다소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요인분석에서 이론과 실제 모두에서 타당성을 보인 문항들을 중심으로 요인별 문항들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이론과 실제적으로 모두 타당한 문항들만을 중심으로 일곱 개의 개념범주(요인)별로 아시아 청소년들의 시민의식 수준을 비교하였다. 〈표 6〉은 국가

집단 간 비교에 활용된 분석들에 대한 설명이다.

<표 6> 국가집단 간 비교를 위한 분석들

요인, 구성, 하위 문항		문항수	구성별 주요 주제
1	시민사회와 체계에 대한 가치신념 - 구성 2의 문항 a, b, c, d	4	구성 2: 권위에 대한 복종
2	시민사회와 체계에 대한 태도 - 구성 5의 문항 d, e	2	구성 5: 환경보호
3	시민원리에 대한 가치신념 - 구성 17의 문항 a, b, c, d, f, - 구성 18의 문항 a	6	구성 17: 연줄과 공공행정 구성 18: 타인 배려
4	시민원리에 대한 태도 - 구성 7의 문항 c, f - 구성 9의 문항 a, c	4	구성 7: 빈부의 차 구성 9: 자국 법제에 대한 신뢰
5	시민참여에 대한 태도 - 구성 12의 문항 d, e, f	3	구성 12: 정치인의 필요 속성
6	시민정체성에 대한 가치신념 - 구성 13의 문항 a, b, c, d, e, f, g	7	구성 13: 아시아 정체성
7	시민정체성에 대한 태도 - 구성 4의 문항 a, d, e, f	4	구성 4: 자국의 전통문화

분석결과에 의하면, 아시아 5개 참여국들의 청소년들은 어른, 고위직, 교사, 부모에 대한 복종의 가치신념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동의한 반면, 사회·경제적 불공정성과 편향적 법제도에 대하여는 다소 부정적인 가치신념을 보였다. 아울러 남을 돕거나 공직에 진출할 때 연줄이나 네트워크 등 관계를 중시하는 풍토에 대해서는 강하게 동의하지 않았다. 아시아 청소년들은 전통적 동양문화, 정치인의 필요 속성, 환경보호, 아시아 정체성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지지하였다. 종합하면, 아시아 5개 국가의 청소년들은 문화적, 환경적, 국가자부와 관련된 시민적 이슈들에는 지지적 태도와 가치신념을 보인 반면, 사회경제적, 법제적, 정부 관련 시민적 이슈들에는 다소 비판적 시각을 나타냈다.

이 같은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시민사회와 체계에 대한 가치신념: 권위에 대한 복종

권위에 대한 복종을 주제로 하여 아시아 청소년들의 시민사회와 체계에 대한 가치신념을 비교해보았다. 비교분석에서 권위에 대한 복종은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어른, 고위직, 교사, 부모에 대하여 복종하여야 하는 시민사회의 체계적 가치로 구체화하였다. <표 7>은 비교분석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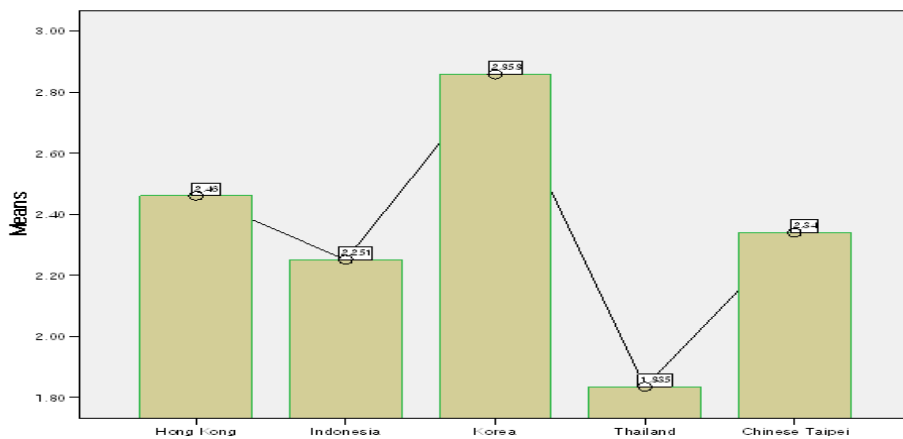
<표 7> 아시아 청소년들의 시민사회와 체계에 대한 가치신념의 국가 비교

국가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홍콩	2.46	.64		170
인도네시아	2.25	.52		193
한국	2.86	.63		236
태국	1.83	.44		196
대만	2.34	.60		290
전체	2.36	.66		1085
분산분석표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유의확률)
집단-간	116.56	4	29.139	88.83(.000)
집단-내	354.28	1080	.328	
합계	470.834	1084		
사후비교분석(Scheffe)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홍콩-인도네시아	.21	.07		.017
홍콩-한국	-.40	.06		.000
홍콩-태국	.62	.06		.000
인도네시아-한국	-.61	.06		.000
인도네시아-태국	.41	.06		.000
한국-태국	1.02	.06		.000
한국-대만	.52	.05		.000
태국-대만	-.50	.05		.000

* Strongly Agree=1, Agree=2, Disagree=3, Strongly Disagree=4

전체적으로 볼 때, 권위에 대한 복종의 시민사회적 체계에 대한 청소년들의 가치신념에는 아시아 국가들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비록 아시아 청소년들은 권위에 대

한 복종이라는 시민적 가치에 모두 전반적인 동의를 보였지만, 동의 수준은 국가별로 차이를 보였다. 한국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본 가치에 대한 동의 수준이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아시아 4개 국가들과 비교할 때, 한국의 경우 어른, 고위직, 교사, 부모에 대하여 순종을 강요하는 시민사회의 가치체계에 대한 청소년들의 신념이 가장 약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한국 청소년들은 권위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가치신념보다 자신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권위의 복종에 대한 태국 청소년들의 가치신념이 가장 강하였고, 인도네시아와 대만의 청소년들의 경우, 일반적 수준에서 본 시민적 가치에 동의하였다.



* Strongly Agree=1, Agree=2, Disagree=3, Strongly Disagree=4

[그림 2] 시민사회와 체계에 대한 가치신념(권위에 대한 복종) 국가 비교

[그림 2]는 권위의 복종에 대한 청소년들의 가치신념의 정도를 아시아 5개 국가들 간 비교한 것이다. 보는 바와 같이 한국과 태국이 가장 큰 평균차를 보였다.

2) 시민사회와 체계에 대한 태도: 환경보호

아시아 청소년들의 시민사회와 체계에 대한 태도를 국가 간 비교하고자, 환경보호를 주제로 하여 두 가지 관련 시민이슈를 활용하였다: 산업계의 환경보호에 대한 사

회적 책임은 이윤 저하에도 불구하고 필요한가; 환경개선을 위하여 자연은 있는 그대로 보호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적절한 인간의 통제가 필요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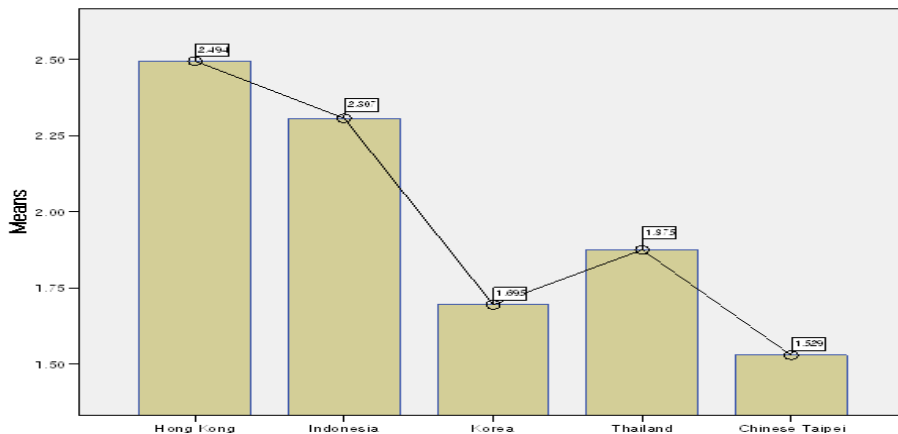
<표 8> 아시아 청소년들의 시민사회와 체계에 대한 태도의 국가 비교

국가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홍콩	2.49	.59		171
인도네시아	2.31	.58		194
한국	1.69	.57		236
태국	1.88	.59		196
대만	1.53	.49		290
전체	1.92	.66		1087
분산분석표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유의확률)
집단-간	141.995	4	35.50	115.10(.000)
집단-내	333.718	1082	.31	
합계	475.713	1086		
사후비교분석(Scheffe)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홍콩-인도네시아	.19	.06		.035
한국-홍콩	-.80	.06		.000
한국-인도네시아	-.61	.05		.000
한국-태국	-.18	.05		.024
한국-대만	.17	.05		.021
태국-홍콩	-.62	.06		.000
태국-인도네시아	-.43	.06		.000
태국-대만	.35	.05		.000
대만-홍콩	-.96	.05		.000
대만-인도네시아	-.78	.05		.000

* Strongly Agree=1, Agree=2, Disagree=3, Strongly Disagree=4

환경보호와 관련한 아시아 청소년들의 시민적 태도는 국가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대만과 한국의 청소년들이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가장 강한 지지적 태도를 보였고, 홍콩과 인도네시아의 청소년들은 그 지지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였다. 이 결과는 한국과 대만의 청소년들은 경제적, 산업적 발전보다는 경제적

이윤을 희생하더라도 적극적인 환경보호에 가치를 두고 있으며,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환경을 통제하기보다는 자연 그대로 두고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들 간 평균차는 홍콩과 대만이 가장 컸다.



* Strongly Agree=1, Agree=2, Disagree=3, Strongly Disagree=4

[그림 3] 시민사회와 체계에 대한 태도(환경보호) 국가 비교

3) 시민원리에 대한 가치신념: 연줄

아시아 청소년들의 시민원리에 대한 가치신념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공직과 사적인 도움과 관련하여 연줄, 네트워크 등의 주제를 시민사회가 공유하는 윤리적 원리의 예로 활용하였다. 분석에서 초점을 둔 주요 맥락은 아시아 청소년들이 공직에 진출 또는 직을 유지하거나 타인에 대한 배려를 고려할 때 연줄이나 네트워크의 중요성에 얼마의 가치를 두는가에 맞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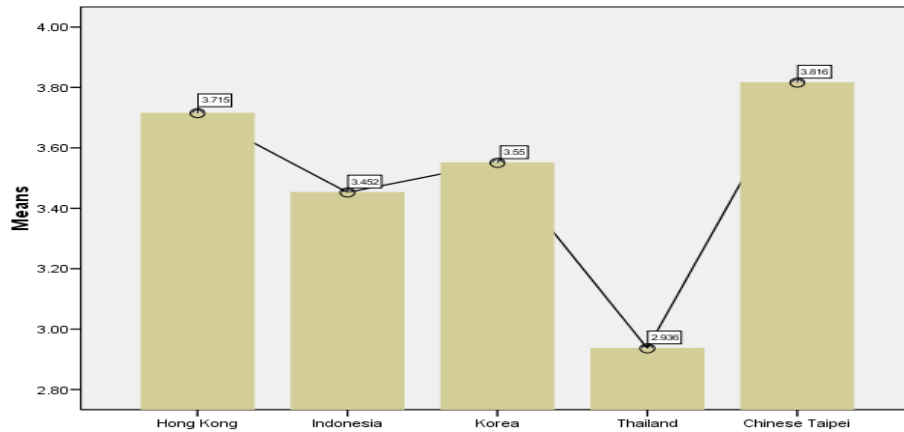
그 결과, 아시아 청소년들은 공직 진출이나 사적 도움에 있어서 개인적 연결, 네트워크, 연줄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민사회체계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아시아 청소년들은 대부분 이 같은 시민적 가치에 대한 동의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으나, 부동의의 정도는 국가 간 차이를 보였다.

<표 9> 아시아 청소년들의 시민원리에 대한 가치신념의 국가 비교

국가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홍콩	3.71	.60		169
인도네시아	3.45	.60		187
한국	3.55	.62		234
태국	2.94	.61		195
대만	3.82	.68		287
전체	3.52	.69		1072
분산분석표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유의확률)
집단-간	99.045	4	24.761	63.949(.000)
집단-내	413.142	1067	.387	
합계	512.187	1071		
사후비교분석(Scheffe)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인도네시아-홍콩	-.26	.07		.003
인도네시아-태국	.52	.06		.000
인도네시아-대만	-.36	.06		.000
한국-태국	.61	.06		.000
한국-대만	-.27	.05		.000
태국-홍콩	-.78	.07		.000
태국-대만	-.88	.06		.000

* Strongly Agree=1, Agree=2, Disagree=3, Strongly Disagree=4

대만과 홍콩의 청소년들의 부동의의 정도가 가장 강하였던 반면, 태국 청소년들의 부동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약하였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청소년들도 공직 진출이나 사적 도움에서 연줄이나 네트워크가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동양적 규범내지는 가치로 여겨져 온 사적 관계나 네트워크에 대하여 청소년들은 사회적 가치를 크게 두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공직이나 남을 도울 때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나 과정이 시민원리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4]에서와 같이 태국과 대만의 청소년들이 가장 큰 태도의 차이를 보였다.



* Strongly Agree=1, Agree=2, Disagree=3, Strongly Disagree=4

[그림 4] 시민원리에 대한 가치신념(연줄) 국가 비교

4) 시민원리에 대한 태도: 사회적 공평과 법 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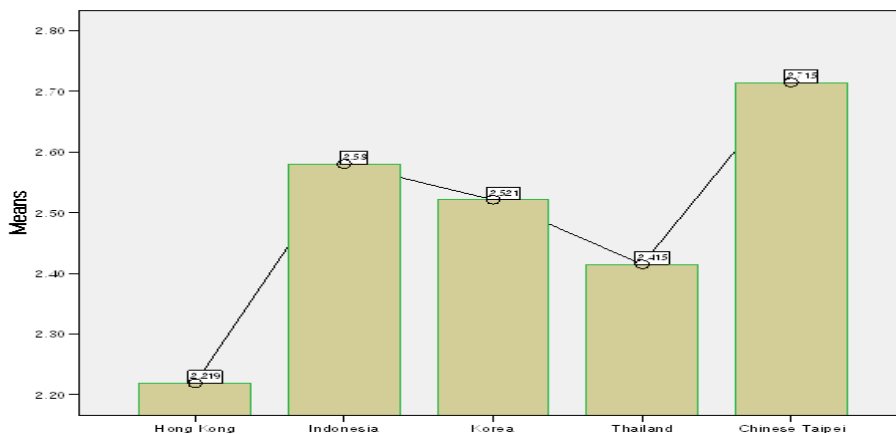
사회적 공평성과 법 신뢰를 아시아 국가들이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윤리적 기반으로 삼아, 시민원리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를 비교하였다. 사회적 공평성은 부자와 빈자간 사회적 불공평을, 법 신뢰로는 학생들이 인지하는 자국 법에 대한 신뢰 정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아시아 청소년들은 자국 사회가 사회적 연결, 법제, 정부정책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부자들에게 우호적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이들이 자국의 사회적 공평성이나 법 신뢰에 대하여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자국의 정치인이나 정부기관이 사법부의 판단에 간섭한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비판적 태도는 홍콩의 청소년에게서 가장 강하게 나타난 반면, 대만의 청소년들은 비판적이긴 하였으나 그 정도는 상대적으로 약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아시아 4개 국가의 청소년들과 비교할 때, 대만의 청소년들이 자국의 사회적 공평성과 법제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지지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10> 아시아 청소년들의 시민원리에 대한 태도의 국가 비교

국가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홍콩	2.22	.39		170
인도네시아	2.58	.34		193
한국	2.52	.39		234
태국	2.41	.37		194
대만	2.71	.40		290
전체	2.52	.41		1081
분산분석표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유의확률)
집단-간	29.213	4	7.303	50.343 (.000)
집단-내	156.096	1076	.145	
합계	185.308	1080		
사후비교분석(Scheffe)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홍콩-인도네시아	-.36	.04		.000
홍콩-한국	-.30	.04		.000
홍콩-태국	-.19	.04		.000
홍콩-대만	-.50	.04		.000
인도네시아-태국	.17	.04		..001
인도네시아-대만	-.13	.04		.006
한국-대만	-.19	.03		.000
태국-대만	-.30	.04		.000

* Strongly Agree=1, Agree=2, Disagree=3, Strongly Disagree=4



* Strongly Agree=1, Agree=2, Disagree=3, Strongly Disagree=4

[그림 5] 시민원리에 대한 태도(사회적 공평과 법 신뢰) 국가 비교

5) 시민참여에 대한 태도: 정치인의 필요 속성

시민참여에 대한 아시아 청소년들의 태도는 국가 간 차이가 없었다($F=1.754$, $p=.154$). 시민참여에 대한 태도는 정치인이 자신의 가족들의 준법 및 윤리적 행동에 대하여 갖는 책무성에 대하여 청소년들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에 초점을 두었다. 아시아 청소년들 모두 본 이슈에 대하여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이 법적, 도덕적으로 투명하게끔 하는데 매우 엄격한 책무를 진다고 보았으나, 태도의 차이는 국가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평균=1.80, 표준편차=.56).

6) 시민정체성에 대한 가치신념: 아시아 정체성

여기서는 아시아인, 아시아의 민주적, 경제적, 인권적 발전, 아시아의 전통문화 등에 대한 자부심과 아시아시민, 세계시민에 대한 정체성을 아시아 정체성을 대변하는 주요 주제로 설정하여 청소년들의 가치신념의 수준을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는 아시아 국가들 간 청소년들의 가치신념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F=2.178$, $p=.069$), 아시아 청소년들은 아시아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1.86, 표준편차=.49).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 요인에 속한 특정 문항들은 국가들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예를 들면, 아시아시민으로서의 의식은 태국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가장 약하였고, 아시아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아시아 경제발전에 대한 자부심의 경우 한국의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가장 약하였다. 인도네시아 청소년들은 아시아 전통문화에 대하여 가장 강한 지지적 가치신념을 보였고, 아시아의 민주적, 인권적 발전에서는 한국의 청소년들이 가장 강한 자부심을 보였으며, 대만 학생들의 자부심은 상대적으로 가장 약하였다.

7) 시민정체성에 대한 태도: 전통문화

마지막으로, 자국의 전통문화를 지키는 것에 대하여 아시아 청소년들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를 중심으로 아시아 국가들 간 시민정체성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표 11>의 결과에 따르면, 아시아 청소년들은 자국의 전통문화에 대하여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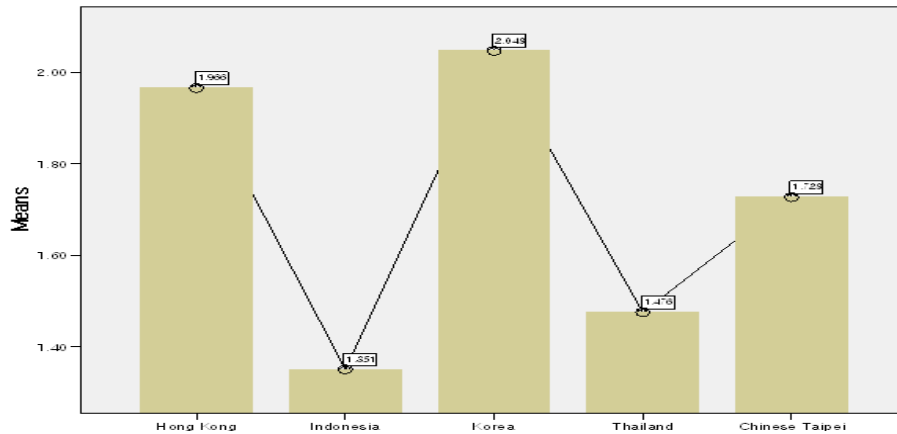
반적으로 지지적 태도를 보였다. 즉, 아시아 청소년들은 자국의 전통문화와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시민적 이슈들에 대하여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11> 아시아 청소년들의 시민정체성에 대한 태도의 국가 비교

국가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홍콩	1.97	.60		171
인도네시아	1.35	.33		194
한국	2.05	.50		235
태국	1.48	.40		196
대만	1.73	.51		289
전체	1.72	.54		1085
분산분석표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유의확률)
집단-간	73.832	4	18.458	80.427 (.000)
집단-내	247.859	1080	.229	
합계	321.691	1084		
사후비교분석(Scheffe)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홍콩-인도네시아	.62	.05		.000
홍콩-태국	.49	.05		.000
홍콩-대만	.24	.05		.000
인도네시아-한국	-.70	.05		.000
인도네시아-대만	-.38	.04		.000
한국-태국	.57	.05		.000
한국-대만	.32	.04		.000
태국-대만	-.25	.04		.000

* Strongly Agree=1, Agree=2, Disagree=3, Strongly Disagree=4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청소년들은 자국의 전통문화와 유산의 보존에 대하여 가장 지지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한국과 홍콩의 청소년들은 물론 지지적 태도를 보였으나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기술한 아시아 정체성에 대한 가치신념과도 일맥상통한다. 한국과 홍콩은 인도네시아와 태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한 지지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은 [그림 6]에서 보다 시각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난다.



* Strongly Agree=1, Agree=2, Disagree=3, Strongly Disagree=4

[그림 6] 시민정체성에 대한 태도(전통문화) 국가 비교

IV. 결 론

현 사회를 보면 그 자체로 청소년들이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지각하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으며, 학교생활에서 얻는 다양한 경험들은 이들의 시민적 역할 지각과 의식 수준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다(IEA, 2010).

21세기 현재, 아시아 청소년들은 시민으로서 주어진 역할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ICCS 2009에 참여하면서 수집한 아시아지역 예비설문조사 자료를 기초로, 본 연구는 아시아 청소년들의 시민의식 수준을 개념범주별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였다. <표 12>는 아시아 청소년들 간 시민의식수준을 비교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국가별로 나타난 아시아 청소년들의 시민의식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홍콩 청소년들의 경우, 환경보호와 사회적 공정성 및 자국 법 신뢰에 대한 시민적 태도가 긍정적이지 못하였고 다소 비판적이었다는 것이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로부터 미루어 볼 때, 홍콩 청소년들은 환경보호의 가치와 산업적 이익의 가치 간 뚜렷한 선택적 입장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고, 아울러, 자국 사회가 다소 불공평하고 법제적 신뢰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 아시아 청소년들의 시민의식의 비교결과 정리

시민적 이슈	지각의 정도 국가(평균)
사회적 복종에 대한 시민적 가치신념	동의 약한 부동의 태국(1.83) - 인도네시아(2.25) - 대만(2.34) - 홍콩(2.46) - 한국(2.86)
환경보호에 대한 시민적 태도	매우 지지적 지지적 한국(1.69)/대만(1.53) - 태국(1.88) - 인도네시아(2.31)/홍콩(2.49)
연출에 대한 시민적 가치신념	약한 부동의 매우 부동의 태국(2.94) - 인도네시아(3.45) - 한국(3.55) - 홍콩(3.71) - 대만(3.82)
사회적 공정성과 법 신뢰에 대한 시민적 태도	비판적 다소 비판적 홍콩(2.22) - 태국(2.41) - 한국(2.52) - 인도네시아(2.58) - 대만(2.71)
전통문화에 대한 시민적 태도	매우 지지적 지지적 인도네시아(1.35)/태국(1.48) - 대만(1.73) - 홍콩(1.97)/한국(2.05)

* Strongly Agree=1, Agree=2, Disagree=3, Strongly Disagree=4

인도네시아의 경우, 청소년들은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특히 자국의 문화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가장 높았고, 가장 중요한 시민적 역할로는 자국의 문화전통, 유산, 독특한 정체성 등을 보존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대만의 청소년들은 공직 진출에 있어서 연출이나 네트워크가 갖는 가치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대만 청소년들은 공직은 개인적 연출과는 무관하여야 한다고 믿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들은 또한 환경보호, 사회적 공정성과 법제적 신뢰의 측면에서 자국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대만 청소년들은 자국 정부와 정치인들이 정책적으로 부자와 빈자 간 균형 있는 지원을 펴고 있고, 법체제도 매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태국의 청소년들은 주로 동양사회의 고유한 양상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권위에 대한 복종과 전통문화이슈 등 아시아 문화를 대변해 온 특징들에 대하여 매우 지지적인 시민적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자신의 의견보다는 어른이나 교사, 학부모의 의견이 우선하며, 전통문화의 보존에 대한 시민적 책임을 중시하였다. 공직 진출에 있어서 연출이나 네트워크 등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 태국 청소년들도 전반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지만, 그 수준은 상대적으로 가장 약하였다.

아시아지역 설문도구는 전통적으로 아시아인들의 일상이나 문화적 맥락에서 중요하게 나타난다고 생각되는 시민사회와 체계, 시민원리, 시민참여, 시민정체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가치신념 및 태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아시아 국가 청소년들과 한국 청소년들을 평균점수를 중심으로 비교하는 것은 한국 청소년들의 시민의식의 수준(예, 전통적인지 혹은 탈전통적인지 등)을 동양사회의 맥락에서 객관적으로 가늠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어른, 고위직, 교사, 부모에 대하여 순종을 강요하는 시민사회의 가치체계에 전반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 한국사회가 전통적으로 어른, 부모, 스승에 대한 순종을 매우 중요한 사회적 규범으로 강조하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은 매우 흥미롭다. 한국의 청소년들은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핵가족화, 산업화 등 현대 사회로의 급속한 이행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다. 이들은 시민사회와 체계에 대한 가치신념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국의 환경보호에 대하여 산업적 이윤을 희생하면서까지 지켜야 할 것으로 봄으로써 급속한 산업화나 현대화를 경계하였는데, 이는 아시아의 다른 4개 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적극적인 태도이다.

한편, 한국 청소년들은 다른 4개 아시아 국가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자국의 전통문화와 유산의 보존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하였지만, 그 인식수준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빠른 현대사회로의 이행 경험이 한국 청소년들로 하여금 사회적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했을 수도 있음을 말해준다. 캐나다 심리학자인 James Cote는 이러한 특징을 일컫어 ‘정체성 자본(Identity Capita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Cote & Levene, 2002). 이 연구의 분석결과로부터 미루어 볼 때, 한국 청소년들에게는 사회적 자본으로서 정체성 자본이 이들의 시민적 태도와 가치신념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유추할 수 있다. 전통적인 사회적 자본의 연구들에서는 청소년들이 교육을 통해 사회적 자본의 이점을 얻는 것으로 보았고, 이렇게 받아들인 부모의 사회적 자본은 그들이 직업세계로 진출하기 위한 통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지구촌화, 핵가족화 혹은 정보화 사회로의 급속한 사회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국의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독립하길 원하고 또래집단이나 미디어 혹은 인터넷과 같은 가상적인 공간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 갈등을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자국의 전통문화와 유산의

보존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 자본을 확충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세대통합이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적 전략이 될 수도 있다.

ICCS 2009의 본조사는 청소년의 시민의식 측정과 아울러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다양한 교육적 지원환경을 측정함으로써 어떤 교육적 요인들이 청소년들의 시민의식에 영향을 주는지를 측정하였다. 아쉽게도 이러한 요인들의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은 아직 본조사 자료 전체가 엠바고 상태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결과적으로 논의된 점들은 향후 본 조사의 자료 분석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일 것이다.

한편, 이 연구는 구조적으로 다음의 연구적 한계를 지닌다. 전술하였듯이, 이 연구의 분석에서 활용한 자료는 2008년 예비조사에서 수집된 것으로, 표집규모는 2009년에 수행된 본조사 표집의 약 1/5 수준에 해당된다. 따라서 자료의 해석에서 다소 제한점을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집 자체에는 분석상 문제점이 없으며, 잠재적 문제점들을 극복하고자 자료의 수집절차나 표집방법에 있어서 본조사와 동일한 방법과 절차를 거쳤고, 자료의 분석에 앞서 설문도구 및 수합자료들의 기술적 적합성을 검토하여 기술적으로 타당한 자료 분석 환경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방법과 절차는 본조사의 기술적 적절성 검정과 자료 분석 및 결과의 해석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교육혁신위원회 (2007). 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미래 교육 비전과 전략(안).
- 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청소년 희망세상 비전과 전략: 앞서 가는 세계시민 2030.
- 김기현 · 김지연 (2007).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성태제(2007). SPSS/AMOS를 이용한 알기 쉬운 통계분석. 서울: 학지사.
- 한나라당 (2007). 일류국가 희망공동체 대한민국. 서울: 북마크.
- Comrey, L., Backer, E., Glaser, M. (1973). *A source book for mental health measures*. Los Angeles: Human Interaction Research Institute.
- Cote, J. E. and Levene, C. G. (2002). *Identity formation, agency and culture: A social psychological synthesis*, New Jersey: Lawrence Erlbaum.
- Deviren, F. and Babb, P. (2005). *Young people and social capital, Phase 2 of joint ONS/DfES Project: Young people and social capital*, Office of National Statistics, UK.
- Helve, H. and Bynner, J. (2008). Youth and Social Capital: Introduction, in Helve, H. and Bynner, J. (eds), *Youth and social capital*, UK: The Tufnell Press.
- IEA (2010). *ICCS International report: Scope statements for chapters*,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 IEA (2007).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Assessment framework*,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 McMillan, J., & Schumacher, S. (2001). *Research in education: A conceptual introduction* (5th Ed.), New York: Addison Wesley Longman.

ABSTRACT

The Civic Perceptions of Asian Youths : Comparisons of Five Countries in the Asia-Pacific Region-Based on the Piloted Data of the ARM

Cho, Young-Ha* · Kim, Tae-Jun**

This study was intentionally designed to obtain objective data on civic perceptions and the levels of preparedness of Asian students in lower secondary school by participating in 2009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ICCS), the international comparisons study undertaken by 38 countries.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objectively delve into the ways in which Asian young people perceived their roles as citizens through data-driven comparative analysis. In terms of methodology, a national comparison of students' civic perceptions between Hong Kong, Indonesia, Korea, Chinese Taipei and Thailand, was conducted. Incidentally, these were the five East Asian and the Pacific area countries that participated in the ICCS(using the module specifically designed to represent traditional Asian cultures and traditions). Based on these findings, we attempted to show how Asian students perceived civic issues in an Asian context, whether similarly or differently. In addition, this study attempted to add educational interpretations and make suggestions for further analyses.

Key Words : IEA's ICCS 2009, asian regional module, youths' civic perceptions and preparedness, asian comparisons

투고일 : 6월 10일, 심사일 : 7월 21일, 심사완료일 : 8월 11일

* Kyung Hee University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